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교회 광고
 - 주일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 수요일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 교회 현장예배에 참여하실 때 발열 체크를 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예배는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다음 주(9월 13일) 현장 주일예배 안내

- 1부예배(10시) 우드사이드, 베이사이드 구역
- 2부예배(11시 30분) 플라싱, 롱아일랜드 구역
- 개인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점심 친교 모임 안내

- 주일예배 후에 지난 달과 같이 Alley Pond Park에서 점심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시간: 오후 1시

9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09/06		최흥만		
09/13	박명자	송 섭		

예배 및 모임 안내

모 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 제목: 열매로 알리라 본문: 마태복음 21장 18~22절
 기도제목: 1. 주님이 바라 보실 때,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습니. 그러나 요즘은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왠지 불안하고 또 이번에는 무슨 문제인가? 설렘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긍정적이고 밝고 기대감에 찬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들으면 한숨이 나는 이야기를 주로 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성전을 생각하시며 주신 말씀이 오늘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전 - 강도의 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전에서는 기도소리 보다는 장사하는 소리! 짐승을 사고팔고, 돈을 환전하면서 바가지 써주고, 깎아달라고 소리 지르고, 기분이 상한 사람들의 불만 소리! 이런 소음으로 인하여 기도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엮으시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라 보셨습니다. 강도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횡박을 해서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자가 강도입니다. 도둑과 차이가 있습니다. 도둑질은 몰래하는 것이고, 강도질은 드러내놓고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지도자들을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지는 않았습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에 칼은 들지 않았지만 어쩌면 칼은 강도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는 강도로 보셨습니다.

2. 화려한 성전 - 묘사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시며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매일 매일 엄청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지만(주후 66년경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해 유월절에 성전에서 드려진 짐승의 숫자가 256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은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고 크게 재건축을 해 주었습니다. 마치 없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길로 보았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3. 열매
 예수님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과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를 교회가 맺을 수 있을 때, 교회는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말라죽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고 맺어야 할 열매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의 특징 중의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까이서 3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 그래서 결국 복음서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드디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나가는 말
 이제 곧 한국교회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점점 말라갈 것이고,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교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 30일 헌금 상황

2020년 9월 6일



주일예배		수요예배(8시PM)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여호수아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나는 예배자입니다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5번(이사야 35장)	
찬 송 Hymn	247장	
기 도(Prayer)	1부: 최태신 권사 2부: 최홍만 장로	
성 경 Scripture	마태복음 21장 18~22절	
설 교 Message	열매로 알리라	
▲ 헌 금 Offering		
▲ 찬 송 Hymn	246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9월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한순자(5일), 서영숙(5일), 안상미(11일), 김유순(13일)
 김은혜(13일), 배태희(19일), 조유림(22일)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Tel : (929) 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